

보도 시점

2026. 7. 20.(월) 11:00

7. 21.(화) 조간

배포 2026. 7. 20.(월) 09:00

국산 기능성 ‘도담쌀’ 시장 키운다... 특허 기술이전 업체와 상생 협력 다져

- 농촌진흥청, 21일 수원서 ‘도담쌀 산업 활성화 공동 연수 및 간담회’ 개최
 - ‘도담쌀’ 안정 생산 및 판로 확대 방안 논의
 - 케이(K)-기능성 쌀, 세계 가공식품 시장 진출 전략 모색

※ 일시 및 장소: 2026. 7. 21.(화) 13:00 ~ 16:00, 수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대회의실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식량과학원은 7월 21일 본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대회의실(경기도 수원시)에서 ‘기능성 쌀 도담쌀 산업 활성화 공동 연수(워크숍) 및 현장 간담회’를 개최한다.

이번 행사는 ‘도담쌀’ 관련 국유 특허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, 생산 지자체와 기술이전 업체 간 상생 협력 및 국내외 판로 진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유관 기관과 ‘도담쌀’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정부(진천군, 남해군) 및 유기농 생산 지역(곡성군) 관계자가 참석한다. 아울러 ‘도담쌀’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개발·유통 중인 업체 등 총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다.

분야별 전문가 발표에서는 ▲가공식품 세계 시장(미국) 진출 동향 및 사례(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) ▲기능성 표시 식품 사전 심의 제도 및 사례(식품위생정책연구원 정명섭 원장) ▲‘도담쌀’ 연구개발 주요 성과 및 기술이전 현황(국립식량과학원 박지영 연구사) ▲기술이전 업체 사업 모델 공유 및 사례(바이오모아메디칼 이동한 대표)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.

이어 간담회에서는 기술이전 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, ‘도담쌀’ 원료곡의 안정적인 계약재배 확대와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(FDA) 안전성 인정

제도(GRAS) 등 국제 인증 대응과 해외 판로 개척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.

‘도담쌀’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2배 이상 높고,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식이섬유 일종인 ‘저항전분’을 10% 이상 함유한 국산 기능성 쌀 품종이다. 특히 복합 열가공 기술(특허등록)을 적용할 경우, 저항전분 함량이 증대된다. 비만 환자 대상 인체 적용 시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38.2% 감소시키고, 당독소(AGEs) 축적을 3% 줄이는 등 당뇨 및 대사성 질환 예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.

최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장내 유익균을 증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해 대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추가 구명해 국산 쌀의 핵심 건강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.

‘도담쌀’ 관련 기술이전은 총 70여 건(35개 업체)에 이르고, 쌀과자, 쌀국수, 선식, 즉석밥 등 다양한 제품으로 상용화돼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. 특히 남해, 진천 지역 등에서 농가와 40헥타르(ha) 규모의 계약재배를 맺고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등 쌀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증대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.

농촌진흥청 품질관리평가과 하태정 과장은 “‘도담쌀’은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이 역량 있는 산업체들과 만나 성공적으로 상용화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상생 사례”라며, “‘도담쌀’ 생산 지방정부 및 기술이전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기능성 쌀 소비 확대 전략을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. ‘국산 기능성 도담쌀 산업 활성화 워크숍 및 간담회’ 계획(안)

담당 부서	국립식량과학원 품질관리평가과	책임자	과 장	하태정 (031-695-0600)
		담당자	연구사	박지영 (031-695-0622)
	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			

붙임

국산 기능성 도담쌀 산업 활성화 워크숍 및 간담회 계획안

- **목적** : 도담쌀 원료곡 안정생산을 통한 생산·가공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, 기능성 표시제 대응 및 국내외 판로 진입 지원 방안 공유와 현장의견 수렴

□ 행사개요

- (일시) 2026. 7. 21.(화) 13:00~16:00
- (장소)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대회의실(2층)
*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(구농촌진흥청 본관)
- (참석) 도담쌀 기술이전 업체,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등
- (주요내용) 기능성 쌀 산업 확대 방안, 기술이전업체 현장 간담회등

□ 세부일정

시 간		세 부 내 용	비 고
13:00~13:30	30'	<등 록>	
13:30~13:40	10'	• 참석자 소개 • 인사말씀 • 기념촬영	사회자
13:40~14:50	70'	<분야별 전문가 발표> • 가공식품 글로벌(미국) 시장 진출 동향 및 사례 •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고시 및 광고 심의 가이드 라인 • '도담쌀' 연구개발 주요 성과 및 기술이전 현황 • 기술이전업체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사례	좌장: 매일경제 정혁훈 부국장 허정아 부장 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 정명섭 원장 (식품위생정책연구원) 박지영 박사(식량원) 이동한 대표 (바이오모아메디칼)
14:50~15:00	10	휴식	
15:00~16:00	60'	<간담회> • 기술이전업체: 바이오모아메디칼, 증안리약초마을, 백제, 느린단맛연구소, 에스엠바이오, 엔자임팜 등 • 지자체: 진천군, 남해군, 양평군 등 • 유관기관: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한국쌀가공식품협회 • 전문가: 매일경제 정혁훈 부국장 • 내부: 경지이용작물과, 기술지원과	좌장: 하태정 품질관리평가과장
16:00~		• 폐회	

□ 기대효과

- 도담쌀 국내외 가공 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여